



방송현장

시대를 초월한 무대 : KBS '이 순간을 영원히'

박지영

KBS 대형이벤트방송사업단 단장

목차

- 1 28년 만의 귀환, 불가능을 가능으로
- 2 제약 속 연출의 전환
- 3 “연습만이 살길” – 가왕의 자세
- 4 공영방송이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
- 5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인 날

요약

KBS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8년 만에 조용필의 방송 복귀 무대 '이 순간을 영원히'를 성사시켰다. 대관, 섭외, 기술적 제약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1만 8천 관객 전원 무료 초대로 진행된 이 기획은 최고 시청률 18.2%를 기록하며 지상파 방송의 대중적 영향력을 재확인시켰다. 가왕은 “연습만이 살길”이라며 매일 연습실을 찾았고, 30년간 호흡을 맞춰온 밴드 역시 첫 무대를 준비하듯 임했다. 미디어 환경이 파편화된 시대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른 풍경은 공영방송만이 만들 어낼 수 있는 집단적 경험의 가치를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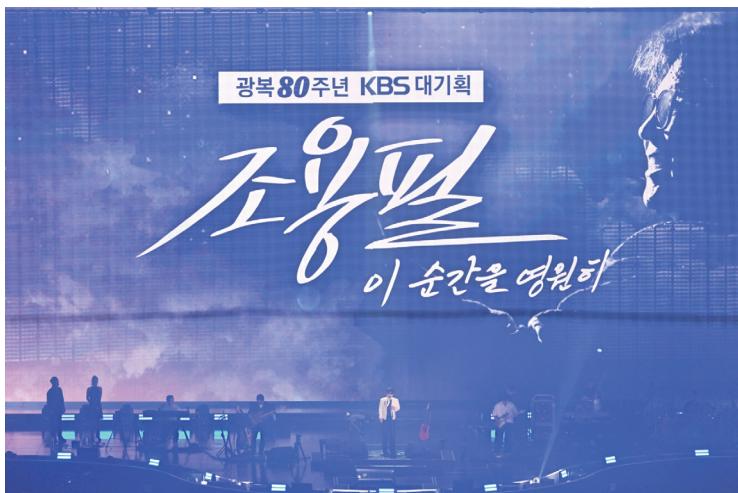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유난히 그 소녀가 보고 싶다.”

조용필 1집 <단발머리> 中

어린 시절, TV 브라운관에 얼굴이 닿을 듯 매달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던 기억이 있다. 마치 가사 속 ‘그 소녀’가 나인 것처럼 설레며 부르던 노래. 어쩌면 내 인생 첫 가요였을지도 모르겠다. 첫 가수, 첫 연예인, 그리고 어쩌면 첫사랑 같은 존재—가왕 조용필. 그분을 28년 만에 TV로 다시 모셔오는 기획을 시작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에 걸맞은 대형 쇼의 주인공은 남녀노소를 막론해 조용필밖에 없었다. 조용필 섭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돼서 못하는 일. 2024년 말, 이 기획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솔직히 섭외가 성사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방송 PD로서 가슴 속에 묵혀둔 막연한 로망,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일” 정도였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첫사랑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얼어 죽어도 가보자.

[그림 1] 〈이 순간을 영원히〉 공연 무대



1. 28년 만의 귀환, 불가능을 가능으로

문제는 첫 연락이었다. 조용필의 회사 YPC는 이름조차 낯설었고, 연락처도 없었으며, 접촉 방법 자체가 미궁이었다. KBS 마지막 출연이 1997년이라니… 마지막 인연이 28년 전이라, 그 시절 함께했던 분들은 이미 은퇴했고 연락도 끊겨 있었다. 조용필을 MBTI로 구분하자면 'T'에 가까운 분이었다. 철저한 윤둔형 아티스트였다. 3개월간의 암중모색 끝에, 올해 3월 초 드디어 YPC와 연락이 닿았다. 그저 담당자와 만나는 것만으로도 흥분되고 설레는 일이었다. 하지만 관계자 미팅은 시작일 뿐 28년 만의 방송 출연은 조용필 본인에게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음악적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에게 방송 사운드에 대한 걱정은 당연했다. 그래서 제작진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신뢰'였다. 하루아침에 쌓이는 신뢰는 없다. 출연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며 하나씩 제안을 올렸다. 이런 레전드에게 어지간한 방송무대 제안은 눈에 차지 않을 터. 그를 움직일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가 단 한 번도 서보지 않은 무대인 고척 스카이돔을 제안했다. 잠실 주경기장 5만객석을 여러 차례 매진시킨 가수라 해도, 고척 스카이돔은 처음이었다. YPC에서 귀띔하길, 그가 흥미를 보일 무대라고 했다.

하지만 대관이 문제였다. 2025년은 K-pop의 황금시대이자 최전성기이다. 탑 아이돌의 공연으로 이미 연말까지 대관 일정이 꽉 찬 데다, 원래 편성된 야구 경기까지 더해 9월 대관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공영방송 특성상 무료 초대 공연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만 따지면 바로 탈락이었다. 고척 스카이돔 개장 첫해(2015년) <가요대축제> 이후 KBS가 고척 스카이돔을 대관 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러나 답은 '초심'에 있었다. "광복 80주년에 조용필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이 공익성을 앞세워 서울시 체육정책과·문화정책과를 설득했고, 서울시와 공동주최 자격을 얻었다. KBO와 키움 히어로즈의 협조를 얻어, 숨구멍처럼 비어 있던 9월 초 하루를 간신히 확보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대관이 기적처럼 열렸다. 공연장이 해결됐으니, 이제는 공연의 속살을 논의해야 했다. 두 번째 제안은 KBS 교향악단과의 협연이었다. 조용필은 민요·가곡·소울·블루스·록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아우르고 넘나드는 도전의 아이콘이었다.

2010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했던 조용필이다.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아픔의 섬에서 특별한 공연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켜 그 이듬해 자신의 밴드와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 무료공연을 개최했던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때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이번 방송으로 담아보고 싶었고,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조용필은 팬 사랑이 각별한 아티스트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가 국민에게 선물하는 무대를 준비한다면, 오랜 세월 조용필을 기다려 온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믿기지 않게도 이런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가왕의 방송 복귀가 기적적으로 구체화됐다. 이 공연은 단순한 1회성 콘서트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콘서트 방송에 앞서 조용필의 음악 인생 57년 음악 인생을 조명하는 토크쇼를 1부, 본 공연을 2부, 공연장에 오는 관객들의 감동과 스태프들의 열정이 담긴 비하인드 등 총 3부로 기획하며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다큐 3부작의 막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관계자와 연락이 닿은 지 3개월 후인 6월 초 드디어 그의 실물 영접을 할 수 있었다. 이미 실무진과 충분히 논의를 마친 상태라 사실상 출연 확정된 상태에서 양측의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첫 만남을 앞두고 나 또한 조용필의 팬으로서 설레고 영광스러웠지만, 혹시나 돌발변수로 일이 어그러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기우였다. 어떠한 경지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란 이런 것일까? 만 75세의 어르신께서는 언제나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계셨고, 본인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기보단 까마득히 어린 제작진의 의견을 경청했다. 제작진의 연출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의 목 상태만 걱정하며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제작진을 격려했다. 모두가 추앙하는 레전드 아티스트가 한 어른으로서 깊은 인품까지 갖췄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래서 때로는 비현실적인 인물로도 느껴졌다.

첫 시작은 셋리스트. 평소 그는 두 시간 공연을 하시지만, 28년 만의 방송에 두 시간은 너무 짧았다. 총 30곡의 셋리스트를 확정했고, 그 과정은 올림픽 4강전처럼 치열했다. 무려 20집의 정규앨범이라는 방대한 음악 이력에다, 앨범마다 히트곡이 즐비했다. 몇몇 앨범은 수록곡 전체가 히트곡일 정도였다. 초대 가수에 대한 논의도 꽤 오랫동안 진행됐으나, 결국 그의 기존 스타일대로 오롯이 혼자서 쉬지 않고 달리기로 결정했다. 공연 제목은 <이 순

간을 영원히>.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번 방송의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시청자에게도….

2. 제약 속 연출의 전환

[그림 2] 1만 8천석을 꽉 채운 관객



공연 준비가 무르익은 뜨거운 여름,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다. 개관 10년을 맞은 고척 스카이돔이 노후화로 인해 천정 하중이 기존 50톤에서 25톤으로 50%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25톤이면 기본 스피커·LED만 설치해도 한계에 달했다. 돌출 무대, 플라잉 무대 등 기존 콘서트와 다르게 방송이니 시도하려고 했던 기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고 그 어떤 아이디어도 안전상의 이유로 구현할 수 없었다. 특별한 장치 없이 오롯이 조용필의 노래만으로 정직하게 승부를 봄아하는 상황이었다. 연출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가왕의 음악이 훌륭하더라도 과연 이것만으로 시청자를 붙잡을 수 있을까, 방송쟁이로서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과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음악 자체’가 중요해졌다. 조용필 음악의 위대함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연출의 핵심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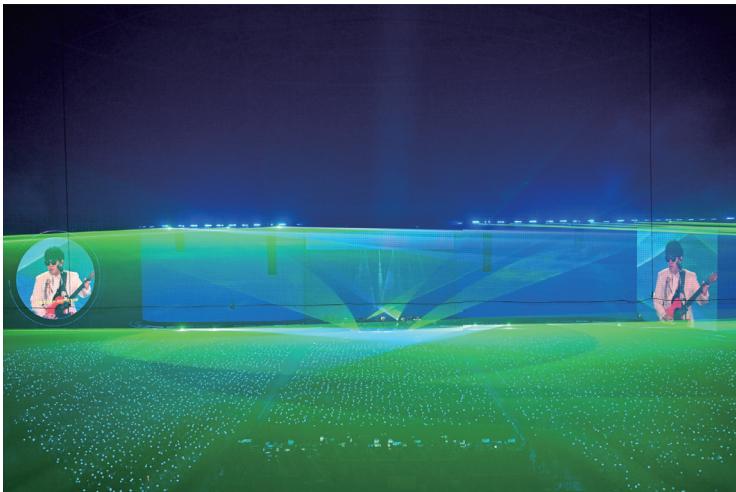
“클래식한 명곡에 트렌디함을 입힌 연출”

데뷔 57년차, 두 세대 가까이 이어진 세월 동안 수많은 영광과 찬사가 있었지만, 그는 과거의 화려한 시절을 되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가수에게 무슨 왕이냐며 ‘가왕’이란 타이틀도 사양하고, 그저 ‘가수 조용필’로 불러달라고 한다. 오직 노래하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에만 관심을 갖는 현재 진행형의 아티스트. 제작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클래식이 되어버린 그의 명곡에 가장 트렌디한 방식의 연출 방식을 접목시켰다. 최첨단 공연 기술인 AR, 증강현실을 적용했다. 현장에서는 볼 수 없지만 카메라를 통해 전파로 나가면 현장에 없던 이미지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구현되는 기술이다. 여기에 1만8천개의 LED 응원봉을 더했다.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맞춰 색깔과 움직임을 원격 제어하는 LED 응원봉은 K-pop 공연의 상징이다. 중장년층 관객에게는 생소한 문화일 수 있었지만, 이를 전원에게 무료 배포해 공연장의 관객 모두가 무대 연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후에는 응원봉을 하나하나 직접 수거해 재사용하는 환경 친화적 방식을 시도했다. 개당 만원에 이르는 응원봉을 무료로 배포한 것 자체도 화제였지만, 이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다. 처음엔 팀원들도 반대했다. 방송 외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일에 비용과 품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일들도 이 공연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다.

메인 무대는 세로 20미터, 가로 130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LED 스크린이다. 시원하게 뻗은 대형 LED의 양 끝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처리해, 조용필의 음악이 끝나지 않고 무한대로 계속되는 느낌을 담았다. 그리고 그의 음악으로 온 우주를 채우는 느낌을 시작적으로 채워갔다. TV 시청자들도 한 편의 시 같은 그의 가사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가사를 곱씹으며 공연장처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매 곡의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과 폰트를 고르고, CG로 가사를 크게 삽입하였다.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가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는 감동적인 풍경. 음악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위대한 여정을 담기 위해 총 50여 대의 카메라를 배치했다. 그의 노래에 울고 웃는 관객들의 표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20여 명의 베테랑 VJ들이 고척 스카이돔 구석구석을 누비며 꼼꼼히 커버했다.

[그림 3] 초대형 LED 스크린과 관객석



그렇게 카메라에 담긴 관객들의 모습은 세대, 성별,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노래로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 이 마법 같았던 순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편집 작업에서도 신경을 썼다. 무대 못지않게 울고 웃고 따라 부르며 호흡하는 관객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리액션 컷을 고르는데도 공을 들였다. 좋은 리액션 장면을 담아내기 위해 1만 8천석의 좌석표를 직접 그려가며 관객의 성향에 따라 배치를 설계했다. 이것도 연출의 시작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연습만이 살길” – 가왕의 자세

KBS 본관 5층에 연습실을 꾸미자, 가왕은 마치 직원처럼 출퇴근했다. “목소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늙는다.”며 그분이 강조한 건 오로지 연습뿐이었다. 연습도 실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공연을 하듯이 서서 소화했다. 30년간 조용필과 호흡을 맞춰 온 밴드 ‘위대한 탄생’도 마찬가지로, 첫 공연을 준비하는 팀처럼 연습에 또 연습을 거듭했다. 먼지

[그림 4] 가수 '조용필'



처럼 작은 디테일을 모아 거대한 완성도를 쌓아갔다. 하중 문제로 불안했던 마음은 리허설을 보며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건 된다. 마침내, 공연 당일. 비를 몰고 다니기로 유명한 조용필의 공연답게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한참 쏟아졌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도 1만 8천 석 고적 스카이돔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돛 안의 날씨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명했다.

4. 공영방송이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

관람객 1만 8천 명 전원 무료 초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공연의 완성도까지 포기 할 수 없었다.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안무 등 각종 프로덕션 비용도 상업성을 전제로 한 일반 공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이는 공영방송이었기에 가능했고, 수많은 KBS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국보급 아티스트 조용필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진심을 다해 최선의 역량을 쏟아냈음

[그림 5] 가수 '조용필'



은 물론이고, 타 부서 직원들도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과감한 제작비 집행, 우수한 스태프 구성, 3시간이라는 파격적 편성, 홍보를 위한 영화관 대관까지 전사적 지원이 이어졌다. ‘조용필’의 힘이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공연의 진짜 주인공은 관객이다. 그들의 리액션이 결국 공연의 완성이기 때문에 관객 선발부터 세심히 진행했다. 무료 공연이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피켓팅’(피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라 불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부모님께 효도’라는 콘셉트로 온라인 관객신청을 1차로 받았는데 1차 티켓팅은 무려 3분 만에 매진되었다. 공연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 열기는 자연스럽게 사전 홍보로 이어졌다. 티켓팅에 취약한 팬들을 초대하기 위해 사연 신청, 각종 SNS 이벤트 등을 열어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저소득 총·장애인 2천 명 초청까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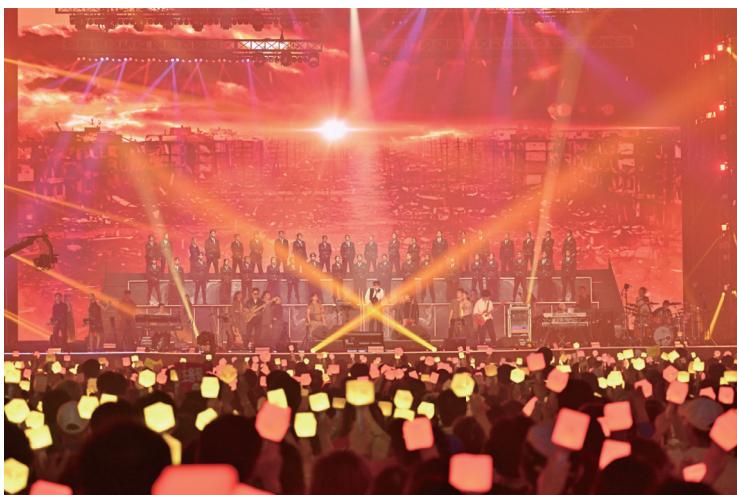
월드 클래스 무대를 창조한 뮤지션. 그 분에게 누가 되지 않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다짐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하는 당연한 숙제를 그 분과 함께 하니 더 잘 하기 위해 애썼던 것 같다.

5.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인 날

[그림 6] <이 순간을 영원히> 공연 무대 스케치



[그림 7] <이 순간을 영원히> 공연 무대 스케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핸드폰이 뜨거워졌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의 연락도 반가웠지만, 가장 좋았던 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 함께 보는 모습을 찍어서 보낸 사진들이었다.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던 시대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TV를 같이 보는 풍경. 그것이 조용필의 노래가 가진 힘이었다.

공연의 포문을 열었던 오프닝 <미지의 세계>의 첫 소절,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 준 ‘오빠 조용필’과 함께한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은 정말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하는 시간을 보냈다. “연습만이 살길”이라며 “신인의 자세로 노래하겠다”던 그분 덕분이었다.